

모트렉스,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운영기술 개발 주관기관 선정

- ▶ 스마트시티, 항만, 공항, 산단 內 화물 운송을 위한 산업용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에 자율주행 기술 개발
- ▶ 자동차융합기술원, 서울대학교 등 10여개의 기관 및 업체들과 175억 규모 사업비로 추진

[2023-03-06] 모트렉스(대표이사 이형환, 118990)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운영기술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모트렉스는 2월 28일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운영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승인을 완료했으며 약 3년 동안 정부 출연금 140억, 민간부담금 약 35억 총 사업비 175억 원의 규모로 2025년 말까지 연구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해당 연구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 2곳과 서울대학교, 가천대학교, 군산대학교 등 학교 3곳을 포함해 비트센싱, 오토아이티, 모빌테크, 모라이 등 4개 기업이 참여하게 되며 모트렉스는 주관 기관으로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해당 연구는 ① 독립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율주행플랫폼 개발 ② 스케이트보드플랫폼을 중·횡방향 연동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동형 자율주행플랫폼 개발 ③ 독립형/연동형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의 주행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④ 특정지역 內 실증 시나리오 평가 제시 순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트렉스를 비롯한 참여기관 및 업체들은 해당 연구를 통해 산업용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의 자율주행 저가형/고정밀 인지 센서 개발 및 센싱기술 사업화를 추진하여 스마트시티,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자유로운 물류와 이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모트렉스 관계자는 “당사는 화물차 군집주행, 새만금 자율주행 연구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금번 협약한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역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연장 및 확장판으로 보시면 된다.”며 “꾸준한 R&D와 정부과제,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다가올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IVI(In Vehicle Infotainment) 전문기업인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회사는 트럭, 버스 등 상용차의 자율주행 통합 조종석을 개발 중이며, 국토교통부 주관 연구과제인 'V2X 기반 군집 자율주행 과제'를 한국도로공사, 현대자동차와 함께 연구 개발을 완료했으며 자율주행 상용차용 차량사물통신(V2X) 기반 화물운송주행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과제에서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연구 진행중이다.

[사진 자료]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이미지]